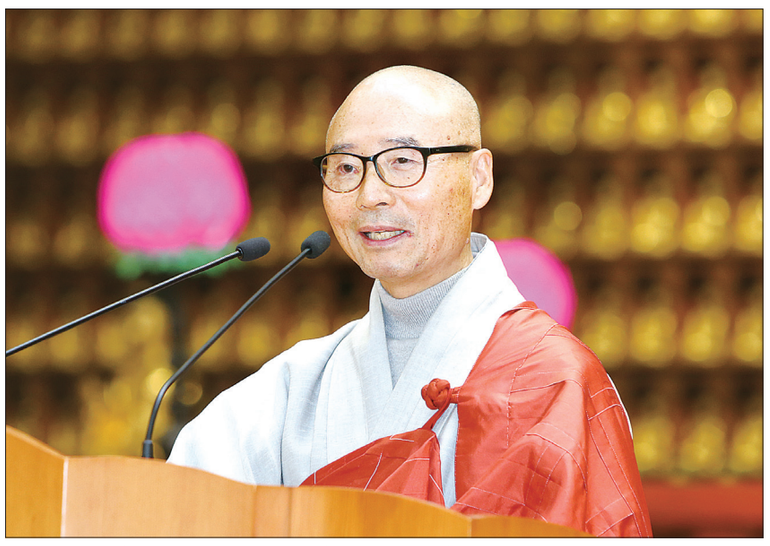
“상월원각대조사 수행종풍 꽃 피우겠다”

부산 삼광사 주지 용암 스님 취임
2월 1일, 지관전서 진산법회 봉행

정진과 기도의 수행 공동체 근본
신앙 공간과 부처님 가르침 공유
정서적 안정 주는 도량으로 성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부산 삼광사 제13대 주지에 용암 스님이 취임했다. 진산법회에서 신임 주지 용암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수행 종풍을 꽃 피우는데 노력 할 것”이라 포부를 전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 제13대 주지에 용암 스님이 취임했다.

2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열린 진산법회에서 신임 주지 용암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의 수행 종풍을 꽃 피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포부를 전했다.

용암 스님은 취임사에서 “편의와 이기심 그리고 욕망에 길들어져 있는 중생의 마음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수용과 멈춤, 비움을 강조하셨다. 욕망을 멈추고 바른 법을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수행하고 기도하는 수행공동체를 바르게 이룰 것”이라며 “임기 4년 동안 상월원각대조사의 수행종풍을 꽃피우는데 노력하고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용암 스님은 “지극한 마음과 열정으로 삼광사와 불자들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주신 영제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를 전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공이듯, 삼광사 주인은 이곳에서 부처님을 닮고자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이다. 삼광사와 인연 맺은 모든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심으로 소통하여 환희심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산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봉독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개회사 △이임사 △취임사 △축사 △음성공양 △관음정진 및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종의회 부의장 경천 스님(광명사 주지), 삼광사 부주지 성해 스님, 덕중 스님, 이헌승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전 주지 영제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삼광사에서 여러 인연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해 행복했다”며 “삼광사는 천태종 최고 사찰이다. 이곳에서 모든 불자들이 열심히 기도 정진하며 앞으로도 최고의 신도가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종의회부의장 경천 스님, 이헌승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등 주요내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경천 스님은 “전 주지스님의 역할과 활동에 감사드리며 보내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이렇게 맞이하는 기쁨도 있다”며 “삼광사 불자들은 전 주지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하고 신임 주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 삼광사를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도량으로 만들고 화합의 모범 불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신임 주지 용암 스님은 천태종 2대 종정 대충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전국 주요 말사 주지 소임을 맡아 포교를 펼쳐왔다. 천태종 교무부장, 재무부장,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황령산 유원지 난개발 우려 ‘백지화’ 촉구

운동본부 2월 4일 기자회견
“황령산, 부산 허파…지켜야”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 계획’에 대해 백지화를 촉구했다.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정산 스님)는 2월 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령산 유원지 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은 2021년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18m 높이의 봉수전망대와 관광테마형 푸드코트, 박물관 등 복합 관광 시설 및 케이블카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2조2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민자사업이다.

정산 스님은 “부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자연 문화 유산인 황령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런 난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오직 일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다. 황령산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문화유산이다. 부산시민을 위한다면 난개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운동본부는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부산시는 투명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지만 함흥차사가 되었고 ‘조건부 승인’을 도출하며 일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형식적인 여론 수렴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시민 기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령산 정상부에 난립하게 될 구조물이 황령산 고유 경관에 교란과 뒤틀림을 발생시킬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봉수전망탑이 랜드마크로 기능하기 위해 과도한 조명이 발광될 때 주변 동식물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이들을 쫓아내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해 운동본부는 “부산시는 개발업자의 이익에 앞서 시민의 녹색복지와 기후 위기에 반하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개발유보를 통해 현명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라”며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통한지, 부처님을 담아내다

현정오 스님 초대전…3월 22일까지


현정오 스님의 작품 ‘사유1’.

갤러리코스모스(관장 김윤희)가 현정오 스님의 초대전을 오픈했다. ‘여래 웃다’ ‘여래 미소짓다’ ‘여래 다시 오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전통 한지만을 이용해 부처님을 그리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현정오 스님은 20년 전, 우리의 전통 한지를 만드는 영담 스님(섶마 닥종이 문화원, 구 영담한지 미술관)과 만나 한지에 부처님을 그리는 작업을 전개했다.

현정오 스님은 약사여래불, 열반, 반가사유상 등 특별함이 넘치는 터치로 탁월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작품을 끊임없이 창작했다. 현정오 스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다. 그림을 통해 모든 이들이 위로 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여래 웃다’ ‘여래 미소짓다’ ‘여래 다시 오다’는 1월 27일 오픈, 3월 22일까지 이어진다. 051-711-718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미단학림원, 자타카 대회 시상식

2월 2일 청량사 법당서



사단법인 청미단생활문화학림원(이사장 운암 스님)이 2월 2일 부산 명지 청량사 법당에서 제16회 부처님 전생담(자타카)영어 말하기 대회 상장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상장 전달식은 지난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제16회 부처님 전생담(자타카)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추우주, 하지현, 김시경 어린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사)청미단생활문화학림원은 상장과 함께 격려금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수상자의 해외 연수를 위한 후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사장 운암 스님은 “어린이 불자의 열정과 노력이 포교 인연의 마중물이 되길 기원드린다”며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 어린이의 노력을 격려하고 향후 어린이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한나래문화재단 ‘몽골영화제’ 개막

2월 5일~7일 영화의전당서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이 2월 5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제2회 몽골영화제’를 개막했다.〈사진〉

올해로 한국-몽골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몽골에서 제작한 최신작 4편을 무료로 선보였다. 이번 영화제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몽골과 한나래문화재단 간 우정의 결실로 마련됐다. 한나래문화재단은 영화제를 통해 몽골의 문화와 삶을 조명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한국과 몽골의 가교역할을 할 이번 영화제를 통해 몽골의 다방면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